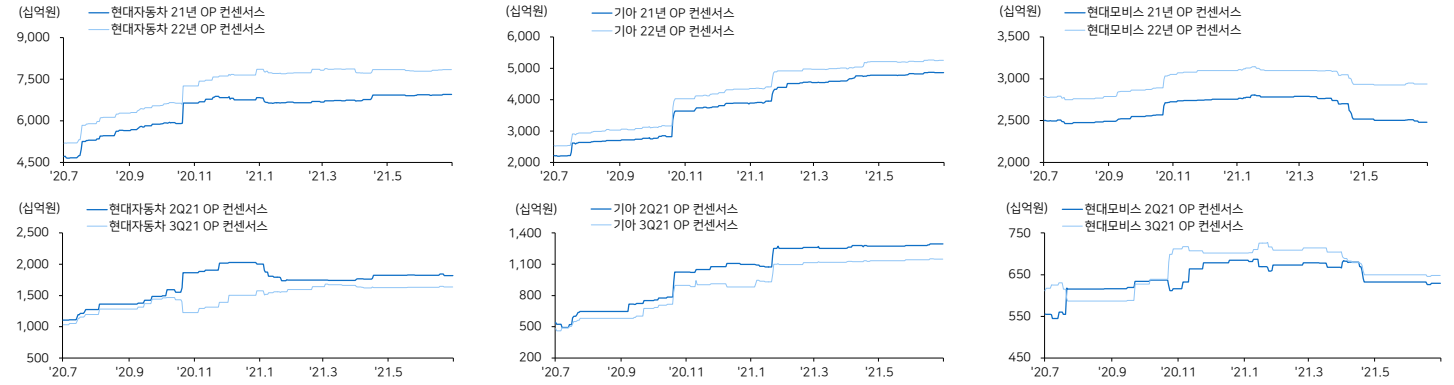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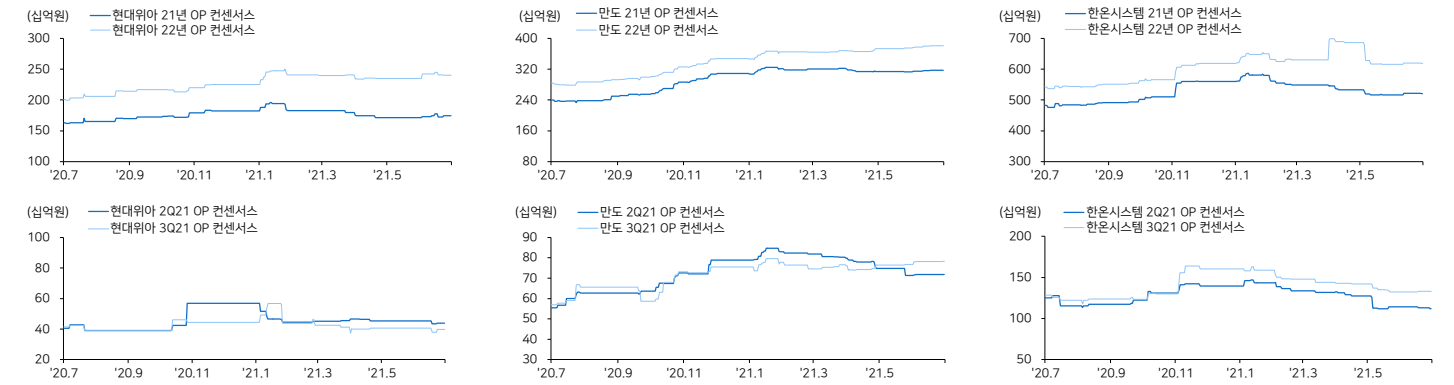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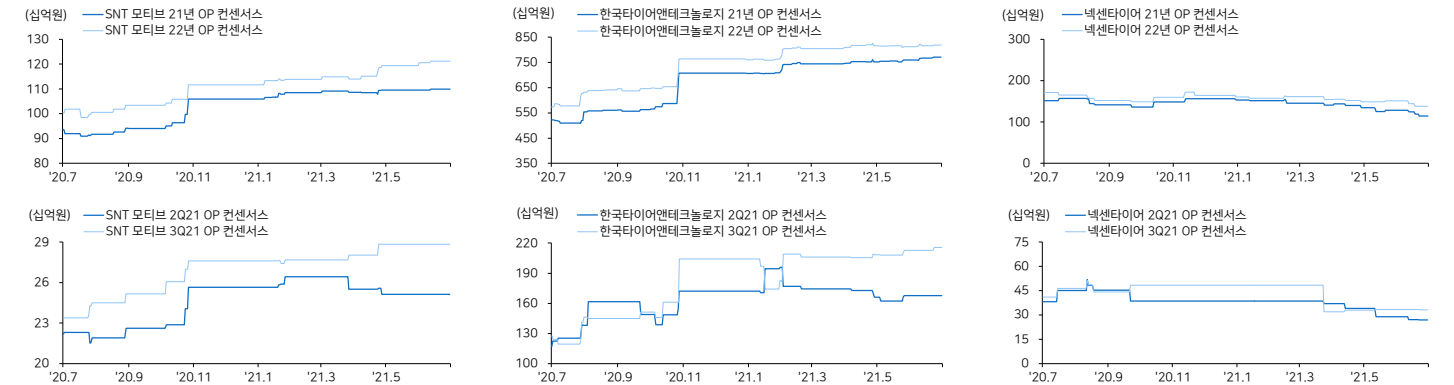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투자 오로라, 美 나스닥 상장 스펙과 합병 결정 (이데일리)

블룸버그통신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가 나스닥 상장 SPAC 'Reinvent Technology Partners Y'와 합병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함. 지난달 IT매체 'Tech Crunch'는 합병가액이 120억달러 내외라고 전망.
<https://bit.ly/3isN04r>

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현대차·기아, 전동화 속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EU가 2035년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이보다 일찍 전동화를 완료해 정영돌파할 계획. 15일 현대자동차 '2025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 핵심시장에서 전연 전동화를 달성함.
<https://bit.ly/3z29mgG>

상반기 차 수출 236억불, 7년만에 최고...부품 수급난에도 50%↑ (한국무역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약 2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9% 늘었다고 15일 밝혔. 북미(107.9억 달러·39.7%), 유럽연합(41.7억 달러·56.3%), 동유럽(27.4억 달러·80.2%) 순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https://bit.ly/3rb2luc>

중 상하이차, '레벨4' 자율주행 로보택시 60대 연내 출격 (THE GURU)

SAIC는 연말까지 상하이와 푸주우 지역에서 L4급 자율주행 로보택시 40~60대를 운영할 예정. 이번 로보택시 생산, 운영을 토 대로 경험자를 쌓고 오는 2025년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
<https://bit.ly/3i85Wf6>

인도·베트남에서 일본 누른 현대차·기아... 日 내부서 커지는 위기론 (조선비즈)

현대/기아가 올해 처음 인도 시장에서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베트남에서도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3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전망. 일본 업계에서는 EV 전환이 늦으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현지 평가가 이어짐.
<https://bit.ly/3xXcPih>

현대차, 경형 SUV 차명 '캐스퍼' 확정...9월 생산 계획 (데일리카)

현대자동차가 4분기 출시 예정인 경형 SUV AX1(코드명)의 차명이 '캐스퍼(CASPER)'로 확정됨. 이르면 9월 생산을 시작해 4분기 국내판매 예정이며, AX는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소형차 전용 'K1' 플랫폼으로 개발.
<https://bit.ly/2UNYcVE>

TSMC signals global chip crunch may be easing (Financial Times)

TSMC는 OEM들이 수 주 내로 칩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단계를 지나갔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함. 또한 지난 2020년부터 MCU 생산량이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
<https://on.ft.com/3knsC77>

폭스바겐, 대형 전기 SUV 'ID.8' 추가 확정... "아틀라스 사이즈" (지피코리아)

디스 폭스바겐 CEO는 지난 14일 개최된 미디어 세션을 통해 대형 전기 SUV 'ID.8' 추가를 확정함. "MQB, MLB, MEB 및 PPE 플랫폼은 앞으로 단일 슈퍼 플랫폼"으로 통합, 생산 비용 감소로 4,000만대 이상 차량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rfExW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